

# “文대표 사퇴만이 살 길”... 징계청원·소환청구·성명 줄이어

## 호남 정치권 압박 수위 고조

새정치민주연합의 뒷받침 호남 정치권이 문재인 대표 사퇴를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며 ‘분당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전북 도당 위원장들이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청원을, 일부 권리당원들이 대표 소환투표 청구에 나서는 등 위기감이 최고조로 치달고 있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에 따르면 황주홍 도당 위원장과 유성엽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날 문 대표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당 윤리심판원에 제출했다. 두 위원장은 문 대표가 선거 집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은 점, 혁신위의 부산 출마 요구를

## 황주홍·유성엽 위원장 징계청원서 당 윤리심판원에 제출 권리당원들 소환투표 청구서... 기초의회 의장단 결단 촉구

거부한 점, 동료 의원들의 비판을 공천권 요구를 위한 분란행위로 폄하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주장했다.

두 의원은 최근 현역 평가자료로 쓰일 당무감사를 거부해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다. 특히 도당 위원장들이 당 대표 징계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전남·북 권리당원 20여명은 지난 8일 문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투표 청구서를 당무감사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2000여명의 권리당원 서명부와 함께 제출한 청구서에서 “문 대표는 선거 연전연패

로 위상을 추락시키고도 어떤 책임 지지 않아 당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환 사유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적격심사 후 당원소환 투표 발의에 필요한 전국 권리당원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전남·북 기초의회 의장단협의회도 오는 11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기초의회 의장단들은 문 대표의 사퇴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불편한 만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오른쪽)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 예산위회의실에서 열린 의총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 “원내대표가 ○○ 의원들과 어울려 지도부나 흔들고...”

### 문재인-이종걸 심야 전화통화 정면충돌

새정치민주연합의 ‘투톱’인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심야 전화통화에서 정면충돌했다.

9일 이 원내대표에 따르면 문 대표는 전날 밤 전화통화에서 “최고위 불참 등 당무 거부할 하면 원내대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격한 발언을 했다. 또, 문 대표는 당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이 원내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도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이 원내대표

가 전했다.

문 대표는 이어 최근 자신에 대한 공격을 주도해온 일부 비주류 의원들의 이름을 들어가며 “○○, ○○ 의원 같은 사람과 어울려 지도부나 흔들고, 원내대표가 그래도 되겠느냐”는 발언도 했다고 이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문 대표에게 “최고위원 두 명이 사퇴한 휴일이 있는 최고위에 가서 기능을 보완해줄 여유가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원내대표가 특정 계파에서 당무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무 거부에 들어간 비주류 진영 당직자들에게 대해서도 “당무를 거부하려면 당직을 사퇴하는 게 도리”라며 “당직을 사퇴하지 않으면서 당무를 거부할 경우 당 대표의 권한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 온 문병호 “文 결단 안하면 安 내주쯤 탈당”

### “현역 최대 30명 동반 탈당”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9일 “문재인 대표가 이번 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다음주쯤에는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안 전 대표의 탈당 시점을 시사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조찬간담회를 하고 당내 분열과 관련, “이번 주를 고비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호남의원 및 비주류 의원들을 제외한 수도권 의원들과 중진 의원들의 사퇴 요구가 현재 거센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문 대표의 사퇴는 대세가 됐다. 이번 주 안에 사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까지 문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안 전 대표가 집거를 끝내고 나와 탈



당을 선인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크다고 그는 전했다.

문 의원은 사건을 전제로, “기성정치를 바꾸고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는 생각에 정치를 시작한 안 전 대표가 더 이상 변화와 혁신에 가망이 없는 당에 남아서 할 일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내 친노세력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현 체제 고수는 친노패권주의, 문 대표 독주체제를 굳히고 다음 대선후보는 문 대표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안 전 대표는 결국 들러리밖에 안 된다”며 탈당 명분을 주장했다.

‘문·안·박’연대와 관련해서는 “그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물밑 대화 등이 꾸준

히 이뤄져야 하는데, 명확한 안(案) 없이 특 던지듯이 제안을 하면 되겠냐”고 ‘문·안·박’연대 제안 과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안 전 대표가 탈당한다면 1차로 적게는 7명, 10명 안팎의 의원이 동반 탈당하고 2·3차까지 20~30명은 충분히 확보해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호남 의원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신당을 추진하는 천정배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도 재확인했다. 문 의원은 “천 의원에 대해서는 호의적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이 해야 할 분야 여건이다”며 “천 의원은 당 정체성에, 박주선 의원·박준영 전 전남 지사는 세를 넓히는 쪽에 초점을 두는 듯한데 천 의원의 스탠스가 나쁘지 않고 뒤로 가면 합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가면이 지배하는 고독한 세계



(138) 복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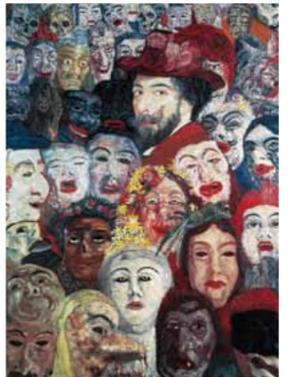
최근 ‘복면 금지법’을 둘러싼 대립으로 복면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는 것 같다. 현대인들은 문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의식하지 못한 채 일상이 기록되고 감시당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복면을 쓴다는 것은 이런 감시로부터 벗어나려는 소극적인 방어에서부터 출발했을 것이고 얼굴을 감추는 익명성 대신 과감한 표현의 자유를 얻으려는 심리 때문일 것이다.

나에게 복면은 참으로 유쾌하게 다가왔던 것 같다. 락 가수를 꿈꾸었으나 뽕짝의 느낌이 있다는 이유로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게 된 주인공이 자존심 때문에 복면을 쓰고 ‘이차선 다리’를 부르던 영화 ‘복면 달호’는 참 인상적이었

다. 아마 그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하는데 최근 인기 TV 프로그램 ‘복면 가왕’도 매회 화제를 모으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복면의 익명성이 그동안 우리 눈을 가렸던 선입견을 벗어나게 해주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다.

유럽 표현주의 화가의 선구자적인 벨기에 출신의 제임스 앙소르(1860~1949)는 작품 속에서 다양한 가면의 세계를 표현했다. 작품 ‘가면이 있는 자화상’(1899년 작)은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을 만큼 강한 인상을 주는 그림이다. 타인들에 둘러싸여 내면의 고립감으로 번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성격을 분석한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의 ‘고독한 군중’(1950년 출간)이라는 개념이 출현하기도 전에 ‘군중 속의 고독’을 담고 있는 듯해 놀랍다.

앙소르는 주위 사람들, 특히 군중을 두려워했는데 인간 본성의 심연을 파헤쳐보면 부드러운 외관 밑에 잔인함이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작품 속 작가



제임스 앙소르 작 ‘가면이 있는...’

는 홀로 가면을 쓰지 않은 채 무엇이 가면이고 무엇이 내면일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가면들을 그의 다면적인 내면을 담은 페르소나로 읽는 이들도 있지만 앙소르의 고백을 되새겨보면 그것은 평론가들의 해석일 뿐이라는 생각도 든다. “나는 가면이 지배하는 고독한 세계, 온갖 폭력과 빛과 위엄의 세계를 되돌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 눈매교정술



졸린 눈, 짙은 눈, 눈꼬리가 처진 눈, 쌍꺼풀 없이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

### 비절개 눈매교정수술

눈꺼풀을 절개하거나 당기지 않으며, 눈꺼풀 안쪽으로 실을 넣어 눈을 뜨는 근육의 일부를 묶는 방법으로 눈매를 교정합니다. 현미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절개법에 비해 부기가 적고 회복기간이 짧아, 크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과에서 눈 성형은 미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눈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 시술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 세밀하고 전문적인 수술에 익숙한 성형안과 전문의가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 안 소아/안 라식/안 라섹/ICL/백내장/녹내장/망막/눈성형/노안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